

지역 소식통

김제시, 공무원 직무 연찬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2일 2024년 주거복지 및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 연찬회는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지원사업 설명과 건축허가 및 해체 업무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 사항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직원 간 교류를 통한 원활한 업무 추진과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교육에서 건축과 2024년 주요 사업현황과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 등을 안내했다.

시는 이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소외된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과 농촌 빈집에 대한 처리 절차 등 생활 밀착형 주거 및 건축민원 사항에 대해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중 의원들은 부패 없는 청렴 의회 조성을 위한 청렴 서약서를 낭독하고 직접 서명해 결의를 다졌다.

이어 김제시의회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 김윤천 강사를 초빙해 법정 의무교육인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해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연구했으며 갑질 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사례 분석하는 등 청렴한 의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수료했다.

김영자 의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몸소 실천하는 행동으로 변화하는 김제시의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후속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어린이집 지원 강화

안정된 수급 유지·인건비 지원 의결... 보육의 질 높여

완주군이 안정된 어린이집 수급을 유지하고, 지원을 강화해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전날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회의에서는 2024년도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우선 완주군 내 어린이집 신규인가와 정원증원 변경인가를 제한해 원활한 보육 수급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기준과 무관하게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을 위해 군 전 지역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농어촌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례가 적용되면 21~39명 규모의 어린이집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적용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출산을 저하 등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는 22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김제터미널 사거리에서 아동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폭력예방 연합캠페인

김제터미널 사거리서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김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2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김제터미널 사거리에서 아동 성폭력 근절에 모든 시민의 동참을 위해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해결의지를 다지는 뜻에서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시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성폭력상담소, 김제경찰서, 김제시가 폭센터,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등 민·관·경 50여명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해 폭력 예방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와 함께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추방 홍보 및 예방 활동을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37억5000만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26일부터 접수 시작 자금 소진 시까지... 최대 5000만 원

완주군이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22일 완주군은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5,000만원을 농협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이 각 5,000만원을 출연해 출연금의 12.5배인 37억5,000만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 완산지점(063-230-3347, 상관·이서·구이)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덕진지점(063-230-3385/이의 읍면)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유선을 통해 상담 예약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일반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해 준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3개월 이상 경영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3%를 3년간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승미경 경제식품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금융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돼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신청 기한 안에 꼭 신청해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시민행복도시 조성 노력 다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참여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각각의 역할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시민참여단의 활동 성과와 타 지자체 우수활동 사례 공유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이해와 분과별 운영 방향 및 역할을 구체화, 2024년의 주요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성 평등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발전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4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위촉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시민



김제시는 2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참여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참여단의 여성친화적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미 단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청년농업인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간담회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농업발전 방안을 위해 청년농업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이후한 대표를 비롯한 청년농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시와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간의 소통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들은 스마트팜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과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매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후한 청년농 대표는 "예비 청년 농

업인들이 초기투자 부담 없이 3년간 스마트팜을 임대해 재배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쌓고 수익창출 등을 통해 창업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을 해주는 김제시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오늘 간담회는 청년농과 활발한 소통의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시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과의 파트너십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창업기반 마련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면서 '동참해 주고 있는 청년농 여러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